

선(善)을 위장한 악에 대한 응징은 가능할까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마이클 모한 감독 '이메쿨레이트'

여름철 개봉영화에 호러물이 빠질 수 없다. 오싹함이 삼복더위를 잠깐 피해줄 수 있다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런 오싹함을 썩 즐기질 않은 편이라 동반 관람할 젊은 친구를 물색해보았지만 의외로 호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어서 '무더위=호러·공포영화' 공식은 옛말인가 싶다. 영화의 타이틀 이메쿨레이트(immaculate)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또는 '결집 없는'이란 의미인데, 영화의 내용으로 보아 '순결한'의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종교적으로는 '무원죄 상태'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마이클 모한 감독 '이메쿨레이트'.

㈜디스티이션 제공

원으로 오게 된 것이다. 신실한 신앙이 가득한 그녀는 어릴적 얼음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수녀의 길을 선택했다.

수녀원은 오래된 역사 만큼이나 고풍스럽고 신비한 건축물이다. 그런 만큼 어딘가 비밀스럽고 음산하기도 하다. 서약을 하던 날, 그녀는 이 수녀원의 성물인 예수의 십자가에 박힌 못을 받아들다 기절을 한다. 밤이면 꾸는 그녀의 악몽은 꿈인 것이 다행이다 생각될 만큼 억압적이고 공포스럽기 이를 데 없다. 어느 날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임신이라는 주치의의 진단이 떨어진 것이다. 그녀를 둘러싼 주교, 원장 수녀, 테데스키 신부와 주치의. 이들은 성모 마리아처럼 구세주를 잉태한 기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수녀원으로 들어올 적에 사전에 버린 검사까지 했다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사도 있었다. 기적의 존재로 추앙받고 보호받지만 세실리아의 눈은 가없이 슬프기만 하다. 그런 그녀를 처음부터 불편하게 바라

보던 이자벨 수녀는 세실리아가 아니라 자신이었어야 했다며 위층에서 떨어져 죽고 이를 비판하던 동료 수녀 그웬은 혀를 잘리는 벌을 받는다. 이를 목도하게 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 이제 선택은 탈출뿐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선을 위장한 악에 대한 응징까지 하고 싶다. 신마다 가득한 공포와 의혹으로 필자는 잔뜩 졸아들어 영화를 보았다. 러닝타임이 짧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얼음땀으로 풀려나자 현실세계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만큼 공포스러웠다는 것이었고 쉽 없이 공포스러웠다는 거였다. 공포 영화가 강약 없이 공포로 일관한다는 것은 뭔가 아마추어적이다. 공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아귀가 맞지 않은 부분이 돌출되는 등 구성상의 가웃한 개연성은 관객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임신 초기, 중기, 말기 등의 소재목까지 붙인 시퀀스의 구분이 적절했는지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잘 소

거했음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다. 안 그래도 충격적으로 잔혹한데 결말이라 해서 다루지 않았다. 끝까지... 영화 '이메쿨레이트'의 결말은 한 편의 잔혹동화를 연상케 한다. 우리에게 안테르센이나 그림 형제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동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원작을 보면, 과연 그럴까 싶게 강도 높은 잔혹함이 들어있다. 우리에게 번역된 이들의 동화나 디즈니 사가 마법을 부린 애니메이션에는 잔혹함이 빠져 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나 '헨젤과 그레텔' 등 원작에 있는 잔혹성을 들여다보면, 신데렐라의 의붓언니들은 유리구두에 발을 넣기 위해 발가락을 잘랐다.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가 아이들을 숲에 버린다는 것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녀를 화덕에 집어넣어 죽였다. 백설공주의 왕비는 불타는 철제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응징을 받았다는 등의 부정적 내용을 필요상 소거한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구전되어온 '장화홍련' 전에도 19금에 해당하는 스토리가 야사에 전해오기도 했다. 이렇듯 동화라서 '복수'라는 응징, 잔혹성 등의 요소를 소거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에서도 빠지기를 바란다.

영화에서 잔상으로 남는 건 배우 시드니 스유티가 뿜어내는 어린 수녀로서의 신실한 아름다움 그리고 피로 딱질을 한 채 응징하는 마지막 신이다. 영화 '이메쿨레이트'는 시드니가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만큼 그녀로서 최선을 다한 연기였리라. 7월17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소멸극복 위해 세액공제율이 개선된 학교사랑기부금 제도 신설 필요

기고 | 윤영민 | 화순지역경제연구소장



저출산, 고령화, 이촌향도 등으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말정산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점차 당연시 돼가고 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개인적인 성취감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기부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소액임에도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특히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독특한 답례품을 주고 있다. 정치기부금의 경우에도 10만원 초과와 경우 15~25%에 불과하나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들 기부금은 소액임에도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큰 부담 없이 기부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방 소멸 위기와 함께 직격탄을

맞는 분야 바로 교육일 것이다. 이들 교육기관들 역시 지자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기탁된 장학금과 같은 학교발전기금은 대체로 학교 교육 시설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도서 구입, 체육·학예활동 지원, 학생 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장학금 경우 고향사랑기부금만큼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장학금을 포함한 '특례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시 15%, 1000만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보다는 동문회의 기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학교의 규모 등에 따라 기금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동문회가 활성화돼 있지 않거나 졸업생이 많지 않은 학교의 경우 기부금 유치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역사가 짧은 신설 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인구감소는 곧 학생인구 감소와 더불어 학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업생 수가 줄어들게 돼 모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아울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기관 운영과 학생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정 원천이지만, 매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기관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 인구감소로 인한 악순환을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장학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동문사회 뿐만 아니라 졸업생 개개인과 지역민, 그리고 독자들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육이기에 그렇다.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세액공제율 개선이 수반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